



HOME > 경제 > 경제종합

농어촌공사 경남본부, 안전·품질·청렴 결의대회·워크숍

✎ 이은수 | ☎ 승인 2025.03.12 16:37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이틀간에 걸쳐 경남본부 및 지사 사업담당자 등 1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·품질·청렴 향상 결의대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.

경남본부는 청렴생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천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'청렴한 공직생활'과 '중대 재해 Zero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'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또 김인식 전 사장을 초청해 '미래농업 특강'을 통해 공사의 발전 방향과 농업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.

뿐만 아니라,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 및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등 직원들의 건설현장 사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사고 및 점검 지적 사례교육·공사현장 품질관리 향상 방안·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했다.

감사실 기술감사부장의 '청렴향상 교육 및 기술분야 감사사례', 본사 기반사업처의 '총사업비 사례 전파 및 추진계획 설명'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과 감사·총사업비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.

손영식 경남본부장은 "2025년 경남본부 안전·품질·청렴 향상 결의대회와 워크숍을 계기로 직원들의 안전·품질·청렴에 대한 능력과 의식이 한 층 더 성장해, '중대재해 제로(zero) 고품질 청렴한 경남본부'를 만들어 줄 것"을 당부했다.

이은수기자 eunsu@gnews.co.kr



농어촌 경남본부 안전품질청렴향상 워크숍 단체사진.



이은수

저작권자 ©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